

침과 땀으로 부모은중경 실천



신행현장

천태종 수족침 봉사회

대자대비(大慈大悲)의 마음으로 중생들에게 두려움 없이 이익을 주는 관세음보살처럼 힘없는 노인들의 원기를 불어 넣어주는 봉사자들의 얼굴에 땀방울이 맺혔다.

1월 19일 오후 2시, 영구입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이 모이는 서울 우면동 은초록노인당에는 할머니·할아버지 60여명이 차례대로 줄을 지어 천태종 수족침 봉사회(회장 신현안)의 침과 뜸뜨기 순서를 1시간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노인당 안방에는 할머니·할아버지의 손과 발에 침을 놓고, 땀을 뜨는 봉사자 10여명의 손길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봉사자들은 자석, 이온빔 등을 통해 허약한 기를 살리는 원기방법과 상응부위치료법을 번갈아 가며 실시하고, 사지를 주물러 주느라 구슬땀을 흘렸다. 봉사자들은 노인당에 나오기 전 서로 상응 부위를 찾아 가며 실습을 마친 뒤라선지 사소하게 병명을 묻고 정확히 아픈 부위를 찾아 시술하는 것에서 꼼꼼함이 묻어난다.

"할아버지 요즘은 어디가 가장 불편하세요. 빨리 원기를 회복하여 등산도 다니시고 건강하게 사세요." "고마워. 덕분에 몸이 많이 편해졌어. 봄부터는 우면산 산책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젊어서 은 젊은 사람들이 자식보다 낫구먼"

노인정에 모인 할머니·할아버지들은 팔과 다리를 걷어 붙이고 앉아서 그동안 좋아진 경과며, 집안의 소소한 얘기들을 즐겁게 풀어놓는다.

할머니의 손에 땀을 뺀 뒤 무릎을 안마해주고 있는 김원호씨(의류사업)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를 실천할 수 있고, 노인분들이 좋아하시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씨는 자원봉사를 위해 일주일에 하루는 사업을 쉬고 현장에 나온다.

한 할머니의 손에 땀을 뜨는데 정신을 집중하던 윤경자보살(43·강지들이 꼭 부모님처럼 느껴진다"고 말하며 할머니의 손을 잡는다.

독거노인인 김소점할머니(86·우면동 은초록아파트)는 "몇 달간 집에까지 와서 침과 뜸을 놓아주어 이제는 마음놓고 노인당에 거동도 하게 됐다"며 "이제는 노인당에 나오면 친구들과 짝을 가서 기도해보고 싶다" 말했다.

60여명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천태종 수족침봉사회는 2개월 8주로 나눠 매달 2회씩 지역 독거노인을 찾아 자원봉사활동을 펼친다. 또 매주 금요일 오후(2~5시)에는 우면사회복지관과 서초노인복지관 노인당 2곳을 순회하며 수족침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김모숙보살(49·강남구 포이동)은 "노인당에 갈 때마다 4년전 돌아간 어머니를 생각하며 부모은중경을 암송한다"며 "어쩌다가 한번씩 봉사에 빠지면 저번 주에 왜 안왔나고 말씀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식보다 낫구먼"



천태종 수족침봉사회 회원들이 1월19일 우면동 은초록 노인당에서 수족침 봉사를 하고 있다.

이들 위해 자원봉사자들은 관문

사에서 4년간 수족침 초, 중, 고, 사암반을 마치고, 대한적십자사 원자간호초, 노인간호, 산모와 아기를 보기 과정까지 이수했다.

수족침봉사회 신현안회장은 "관문사 수족침 교육생이 매년 20~30명씩 배출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서울 시내 1백여곳의 노인정을 순회하며 자원봉사를 벌여 부처님 자비행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태종 수족침봉사회는 2000년 1월 창립하여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열린 자원봉사대축회에 참가했으며 12월 19일에는 서초구청으로부터 자원봉사 단체상을 받았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주제가 있는 법문

남과 여 '도반의 시대' "일체법에는 남녀상이 없다"



원경스님
북한산
심곡암 주지

21세기 밀레니엄 시대는 여성들이 크게 활약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정보화 주도할 이들도 바로 여성들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각처에서 남녀 성역을 넘나들며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제 남녀 직업의 성역이 허물어지고 있고, 남과 여는 밀레니엄 시대를 함께 갈 도반입니다.

여성들의 높아진 권리의식을 반영하는 것이 정부의 여성부 신설이나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현행법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보호받을 줄 모르는 약자에게까지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인간은 평등과 자유를 구가할 수 있는 천부적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남과 여는 인격과 인격으로써 상호

는 시간과 출세권이 따로 없고, 남·노·소가 따로 없이 평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등록>에 의하면 비구니 요연(了然)스님의 법력이 비구 관계(灌溪)스님을 능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연스님이 군주말산(雋州末山)에 계시는 때 마침 관계화상이 선지식을 찾아 헤메다가 요연스님을 참방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말산(末山)의 주인인가?"라고 관계화상이 묻자 요연스님은 "남녀상을 떠났도다"라고 답합니다.

관계화상이 소리를 지르며, "남녀상이 따로 없으면 왜 여자 몸을 바꿔 남자 몸을 못 나누는가?"고 말하자, 요연스님이 초연하게 이르길 "나는 신(神)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거늘 어찌 슬수를 쓰겠는가" 하였습니다.

이에 관계화상이 굴복하고 삼년 동안이나 원두 소임을 맡으며 농사일을 돌봐 드렸으며 요연스님께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법에 대한 소견의 우열이 있을 뿐 남녀의 우열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예라 할 것입니다.

구산 스님이 살아 계시는 때, 어느 여성 불자가 스님을 친견하고서 고백했습니다. "저는 내생엔 꼭 남자를 받고 싶습니다."

크스님께서 이르시길, "내생까지 갈 것이 뭐 있겠느냐. 지금부터 그렇게 살도록 하라." 이 같은 말씀은 여성 스스로가 열등한 차별상의 고정관념에서 깨어나기를 바라는 일갈이며, 법에는 남녀상이 없음을 깨쳐 주시는 법문입니다.

이제 여성들 스스로가 자비와 지혜가 구족한 관자재보살로 거듭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에서 여성에 대한 법(法)다운 인식이 증폭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비구-비구니 불평등 소승적 편협성에서

보완 관계일 뿐 상호우열(優劣)관계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불교에서 마저 여성을 지나치게 폄하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비구니 팔경계(八警戒)에 의하면 백살 먹은 비구니가 법한 한 살의 비구에게 먼저 절해야 한다고 하는 식의 조항은 거의 맹목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같이 지극히 소승적인 것은 애써 고집하면서도 대승적인 것은 돌아보지 않는 경향 때문에 한국불교는 대승을 표방하면서도 소승적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신도층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 불자들이 진실로 우리 불교를 아름답게 장엄해왔습니다. 또한 비구니 스님들은 묵묵히 수행정진에 힘써 옴으로써 한 국불교의 탄탄한 버팀목이 되어 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일체 법에는 남녀 상이 없는 것이 다'라고 하셨습니다. 일체 모든 법이 이와 같아서 있음도 없고, 있지 않음도 없음이니, 남녀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

신행 캘린더

2월 7일(수)

대한불교진흥원 대보법회=대한불교진흥원은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불교학과 이봉춘 교수를 초청해 대보법회를 개최한다.(02)703-0108

2월 8일(목)

화엄사 선대조사 합동 추모제=화엄사는 오전 10시 각황전에서 선대조사 합동 추모제를 봉행한다.(061)782-7600

2월 9일(금)

현대불교사회문화원 개원법회=현대불교사회문화원은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개원법회를 봉행하고 이어 '21세기 세계화시대의 도전과 한국불교의 대응'을 주제로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02)736-6940

인드라마 화엄무차광장=인드라마 생명공공체는 저녁 7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일상속의 깨달음'을 주제로 화엄무차광장을 실시한다.(02)733-1884

2월 10일(토)

강화 선원사 예술제=강화 선원사는 오후 3시 강화문화회관 2층 소강당에서 제3회 선원사 예술제를 개최한다.(032)933-8234

2월 11일(일)

풍경소리 총재 취임법회=좋은 벗 풍경소리는 오후 2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총재 지현, 대표 덕신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한다.(02)717-6985

불교여성개발원 워크숍=불교여성개발원은 11일까지 화성 신홍사에서 상임 위원 워크숍을 개최한다.(02)722-2101

금강불교대학 졸업식=천태종 서울 금강불교대학은 오후 2시 30분 관문사 4층 옥불보전에서 불교학과 17회, 법사과 7회 졸업식을 거행한다.(02)576-6401

석불선양회 마애불 친견법회=석불선양회는 여주 계심리 마애석불 친견법회를 봉행하고 신록사와 목아박물관을 참배한다. 출발은 오전 7시 50분 등대문 이스타호텔 앞.(016)267-7945

2월 13일(화)

선학원 한·태 불교문화교류 대법회=재단법인 선학원은 13일까지 태국 왕실 사원인 Wat Benchamabophit(일명 방콕 대리석 사원)에서 한국불상봉안 및 한·태 불교문화교류 대법회를 봉행한다.(02)734-9654

관문사 교육과정 이수 자원봉사자 60명 독거노인 돕기 '열심'

남구 개포동)은 "자가치료를 위해 관문사 수족침 교육에 참가했다가 절에도 다니는 좋은 인연을 만났다"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수족침으로 인해 몸도 따뜻해졌다고 말할 때 굉장히 좋다"고 토로한다.

김모숙보살(49·강남구 포이동)은 "노인당에 갈 때마다 4년전 돌아간 어머니를 생각하며 부모은중경을 암송한다"며 "어쩌다가 한번씩 봉사에 빠지면 저번 주에 왜 안왔나고 말씀해주는 할머니 할아버

생활속의 불교

막히는 데서 통하는 도리

파도에 시달리는 배가 뒤집히지 않는 것은 복원력이 있기 때문이다. 배가 왼쪽으로 기울면 오른쪽으로 돌아가려는 힘이 작용하고 오른쪽으로 기울면 왼쪽으로 돌아가려는 힘이 작용한다.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모든 경계는 다름 아닌 복원력이다. 나로 하여금 바른 수행을 통해 진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반작용인 것이다. 언젠가 내가 행하였던 신구·의 삼업이 현실의 경계로 다가와서는 나를 향해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게 내게 닥친 경계의 참뜻이다. 선한 과보는 선한 과보대로 더욱 선업을 쌓아가라고 말하고 있고, 악한 과보는 또 그대로 더 이상 악업을 짓지 말고 바르게 살라고 말하고 있

는 것이다. 고로 일체 경계는 다 수행의 재료요 공부의 기회가 된다.

보왕삼매론의 다음과 같은 대목도 그것을 말한다.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쉬우니 병과로써 양약을 삼라.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말라. 곤란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기 쉽다. 공부하면서 마음에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말라.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넘쳐나니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으라. 수행하는데 마장 없기를 바라지 말라. 마장이 없으면 서원이 굳세어 지지 않나니 마장으로 수행의 빛을 삼라." 보왕삼매론의 이같은 말씀은 막히는 데서 도리어 통하는 길을 찾으라는 뜻이다.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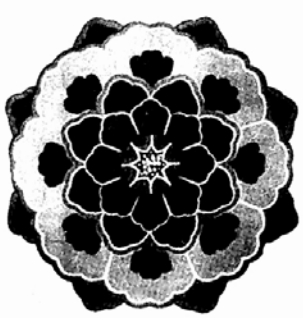
이 일상 속에서 통하고 성취하는 것만을 좋아하다 보면 도리어 움푹달라질 수 없는 처지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눈물 섞인 빵을 먹어보지 못한 이는 인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는 서양 격언이 있다. 생활 가운데 닥치는 어려움이 오히려 나를 완성시키는 길임에도 우리는 한결같이 역경계는 싫다 하고 순경계만을 탐착한다. 그러나 역경계를 견뎌보지 못한 사람은 장애에 봉착했을 때 이를 이겨낼 힘이 없어서 스스로 바른 길을 찾아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거나 비탄에 잠기게 된다.

설도 지나고 방학도 끝났다. '막히는 데서 도리어 통하는 길이 있음'을 곱씹어 볼 때다. 龍眼

2001 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1982년 설립되어 불교 교역자를 양성하고 있는 본 대학은 종합적인 불교교육기관의 면모를 갖추고 뜻 있는 불자들의 입학 바랍니다.



동방불교대학

(우 136-823)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292-1 ☎(02)763-0229, 763-8536

- 모집 내용**
가. 불교학과 (정규 및 통신생) : 00명(편입생 약간명)
나. 법 패 과 : 00명
다. 불교미술과 : 00명
- 응시 자격** :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가. 신입생
1)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2) 강원 사교과 이상의 수료자
3) 태고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나. 2학년 편입생(불교학과만 해당됨)
1) 정규대학 졸업자
2) 불교교양대학 졸업자
- 전형 방법** : 필기시험 및 면접(공통), 실기시험(불교미술과)
- 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 2001년 1월 15일(月) - 2월 17일(土)
(평일은 10:00-17:00, 토요일은 12:00까지, 공휴일은 휴업함)
- 전형일** : 2001년 2월 18일(日) 10:00 - 17:00
-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소정 양식) 1부 나.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다.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라.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가. 주민등록등본 1부 바. 승적증명서 또는 수계증 사본 1부
사. 반명함판 사진 6매
- 전형료** : ₩30,000(불교미술과 ₩40,000)
- 참고사항**
가. 본 대학 이수자에게는 태고종단 포교사자격증을 수여하고, 2년 과정을 이수한 태고종단 승려에겐 법계(대선)를 품수케 함.
나. 기숙사 운영(지방 학생 문의 바람)
- 기타**
가. 제출 서류 가운데 승적증명서나 수계증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은 나머지 서류만 구비하여 제출하여 됨.
나. 편입생 응시자는 수학 경력에 따라 편입등록 함.
다. 통신생은 월 1회(1박 2일)의 출석교육을 이수해야 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 교학처로 문의하기 바람.
- 원서교부 및 접수처**
가. 본 대학 교학처(☎763-0229,8536) 나. 태고종 총무원(☎745-2030~2)
다. 태고종단 각 교구총무원 라. 경서원(☎733-3346)